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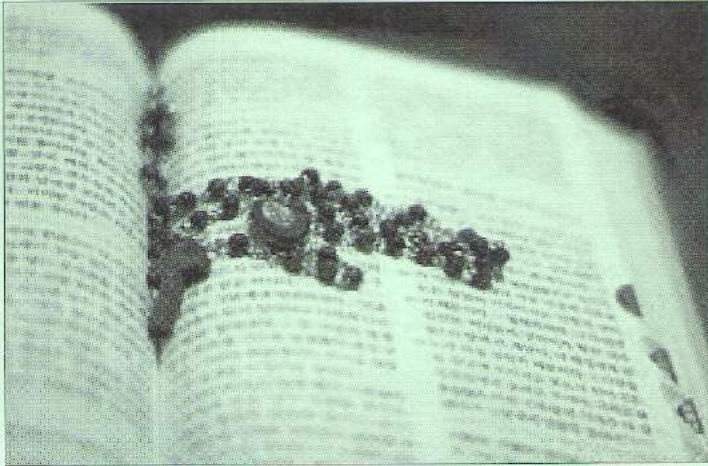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6주일
제37권 12호(가해) 2017년 2월 12일

[묵상]



<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성이러 왔다 >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정치인들,

거룩한 척하는 종교인들,

우정 어린 친구인 척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척하는 사람들,

속마음은 미움으로 끓어오르면서

얼굴은 미소를 띠고 웃는 척하는 사람들,

사실 이러한 모습은 포장지처럼

거저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에 불과하고

내면의 마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율법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올바로 다스리는 데서 비롯된다.

-오-

petrus3@hanmail.net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오전) 2:00 ~ 7:00(오후)
수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목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금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토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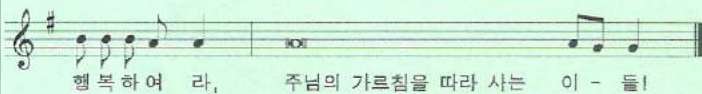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7, 4358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7, 4358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7, 4358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 임은영 안젤라, 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김충열, 서석영 미카엘,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생)
주일 학생	(연)
	(생) 남해원 스텔라
주일 낮 미사	(연)오원순 안나, 고준희 제임스, 송기분 수산나, 임은영 안젤라, 현시영 요셉, 정동점 마리아, 김정례 수산나, 박승주 카타리나의조상 & 레이몬드, 변 안드레아 & 변율리안나
	(생)손석 스테파노, 박정미 클라라,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라이젠, 토동1반, 조정욱 안드레아 & 조아름 & 조아라, 한장환 안토니오, 차병용 클레멘스, 황윤재 베드로 가정, 최경숙 수산나, 한길선레 스킨스틱가족과 가족, 박영희 아가다,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15,15-20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제 2독서 코린토1서(1Corinthians) 2,6-10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마테오(Matthew)5,17-37<또는 5,20-22,27-28,33-34,37>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3. 한국 교회의 쇄신(1962-1984년)

3-3. 정의 구현 운동의 전개

사회에 대한 교회의 발언은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자행된 학살을 밝히려고 노력하던 일단의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1980년 7월 신군부의 수사 당국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1982년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때에는 수습을 원만히 하기 위해 노력하던 사제가 체포되었다. 그는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

4. 현대 교회의 좌표(1984-2000년)

4-1. 신자·수도자·성직자

1980년대 한국 교회는 연평균 신자 증가율이 7.5%를 나타내며 꾸준히 성장하면서, 개신교나 전통 종교보다 2.1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다. 1980년대 가톨릭 교회가 성취한 성장률은 1960년대(6.2%)나 1970년대(5.2%)의 성장률보다 높다. 1984년 한국 교회의 신자 수는 모두 185만여 명에 이르고, 이는 당시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신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하면서, 1999년의 증가율은 3.75%로 줄어든다. 그러나 전체 신자 수는 394만여 명으로 남한 인구 중 8.3%에 이른다. 신자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는 다종교 사회이면서 동시에 무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 시대 영세 입교자 중 대부분은 종교적 개종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가톨릭에 입교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입교의 용이성이 외국과는 다른 문화적 특징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의 한국 평신도들은 교회를 위한 봉사에 기꺼이 즐겁게 투신한다. 이미 1980년대에는 이들의 자원 봉사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사업'(1981년)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1984년)과 '제44차 세계성체대회'(1989년)를 비롯한 대규모 교회 행사를 진행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교회는 중산층화의 길을 걷는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41	241	183
봉헌	265	265	255
성체	279	279	302
파견	246	246	246

늘 살피고 분별해야 할 마음속의 움직임!

화해하지 못한 채 가슴에 품고 있는 미움, 질시, 증오는 살인의 전 단계입니다. 간음의 전 단계는 가슴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음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계명을 지켜나가는 마음의 뿌리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예리하게 지적하며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시시때때로 움직이는 감정과 감성의 흐름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 사랑을 향한 것인지 아닌지를 늘 살피야 합니다.

저는 가끔 신자들로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늘 “나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마음에 담은 채 자신의 처지와 삶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자신에게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정직해지지 않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정직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느낌, 감정들 모두가 기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또는 감사로운 마음이 나를 휘감기도 하고, 때론 간절한 청원이나 탄원, 혹은 투정의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잠잠히 머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간혹 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해답이 가슴 밑에서부터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식별하며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시켜 나갈 때, 내 안에 든든한 힘과 어떠한 상황에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자신에게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의식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 5,17,20) 주님께서서는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속마음이 사랑하기 위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인지 아니면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한 잘못된 마음인지를 분별하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직한 나 자신과 하느님과의 교류가 요구됩니다. 즉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마음, 이 마음은 신자 생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를 보는 듯하지만, 그 마음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 힘찬 생명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같은 눈물일까 봐.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죠.
누선과 타액선이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데
눈물이 흐르는 건 먹이를 삼키기 좋게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랍니다.
많이 먹고 단단한 것을 먹을수록
눈물도 많이 흐른다고 하기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기도할 때마다 자주 눈물이 나는데
나 역시 먹어선 안 될 것을 또 먹었나 해서,
이 눈물이 그 눈물인가 싶어서.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데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민상 요한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도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회수

오는 3월1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 해 나눠드린 성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애 보관하고 있는 성지를 2월26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2월 요셉회 모임

- 일시: 2월19일 (주일) 11시 미사후
- 장소: 강당
- 구순을 맞으신 한장환 안토니오형제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셨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연락처: 정기은 비오 ☎ (310)780-2789

◆ 2017년도 Steubenville San Diego 신앙대회

- 일시: 7월 28일 ~ 7월30일(2박3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대상: 현재 8학년 ~ 12학년까지
- 등록기간: 2월 5일 ~ 3월 5일
- 등록비: \$ 200 (할인된 등록비 1인당 기준)
- 등록 서류는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Pay to :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 문의: 황선준 플로렌시오, 310-658-6654

◆ 백삼위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3월 17일 금요일 - 3월 19일 일요일 (2박 3일)
- 장소: 데메칼라 꽃동네 (37885 Hwy. 79 South, Temecula, CA 92592)
- 대상: 중등부, 고등부
- 등록기간: 2월 12일 ~ 3월 12일

- 등록비: \$ 60
- 문의: 황선준 플로렌시오 ☎ 310-658-6654

◆ 2017년 11월 SAT II 한국어 시험 대비반 개강

- 일시: 2월 5일~6월 18일
- 자격: 현재 8 학년 이상 등록 가능
- 등록비: \$ 200 (교재 및 기타 자료 포함)
- 장소: 한국학교 교무실

◆ 2017년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I, II)

- 시험일시: 2017년 4월 15일
- 시험장소: LA 한국교육원
- 접수마감: 2월 14일까지
- 응시수수료: TOPIK I - \$ 25, TOPIK II - \$ 30 (단 2월 12일까지 백삼위 한국학교로 접수하는 학생인 경우는 무료)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 & 한국학교에서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103skccs@gmail.com

◆ 다음 주일(19일)은 프레지던츠 데이 연휴로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 12일: 육개장(토서1,3반)
*주일학교 : 튜나 셀러드(8,10학년)
- 2월 19일: 쇠고기 무국 (토남1,2반)
*주일학교 : 수업 없음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경철호 구자운 권태만 김기정 김상규 김선영 김선제 김성현 김옥찬 김 은 김인성 김종렬 김현숙 김형순 남인구 노순애 노혜숙 민정근 박씨니 박인식 박정자 박정희 방정복 배태임 송재훈 안민수 안재만 양영자 오명섭 유선식 유영균 윤선희 윤 철 윤희동 이근모 이복임 이상석 이인석 이정분 임의웅 장영우 정동호 정명모 조준제 주대중 주용순 지경수 최기남 최미열 최지영 이크리스	성전헌금	경철호 구자운 권태만 김기정 김선제 김성현 김현숙 남인구 노혜숙 민정근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안민수 안재만 양영자 유선식 윤선희 윤희동 이근모 이상석 이인석 이정분 장영우 정동호 조준제 주대중 주용순 지경수 최기남 최미열 최지영 이크리스
	합계: \$ 6,150		합계: \$ 2,180
주일미사헌금: \$ 2,536		2차 헌금: \$ 566	도네이션(익명): \$ 3,800

남가주 소식

◆한국의방선교회 멕시코 캄페체 선교지 방문단 모집

- 방문일정 2/23(목)-2/28(화)
- 방문지 : 멕시코 캄페체
- 활동 : 미사 봉헌과 문화탐방
- 연락처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기쁨행사'

- 일시 : 2월18일(토요일)
- 미사 : 11시
- 장소 : 작은 예수회 LA분원
1137Arapahoe St. Los Angeles, CA 90006
- *** 사순시기 친구약성경 완독피정 ***
- 일시 : 3월1일~4월17일, 매일 오전10시~오후1시
- 장소 : 작은 예수회 소성전(공동체 상황상10명만 신청받습니다)
김그라시아수녀 ☎(213)820-6535

◆ 제 18차 '청실홍실' 행사 안내

결혼 적령기 자녀들의 '짝짓기'를 위한 '부모들의 만남의 장'인 제 18차 청실홍실 모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간 : 2017년 3월 12일(일) 오후 5시 ~ 9시
- 장소 : 엘에이 옥스포드 호텔 745 S. Oxford Ave, L.A)
- 참석자 : 결혼적령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님
(자녀와 함께, 혹은 자녀 혼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 회비(식대포함):\$100 (두 사람\$150 - 세 사람 \$200)
- 주관 : 남가주천주교 한인중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운동 본부
- 연락처 : 이메일<chungsilhongsil@gmail.com>
전화(714)530-3111

-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 37기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 강의 : 2017년 2월26일(주일) 낮 1시~5시
27일(월)저녁 6시~10시 중 하루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 교육후 10회실습
- 교육비 : \$200(당일 지불)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CA 90007
- 문의 : 성당사무실 (323) 731-4433
E-MAIL : ignhanddrip@gmail.com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김광자 엘리자벳 02/1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한장환 안토니오 02/11(토) 오후6시 미쿠리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02/17(금)오후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강인모 테오도시오 02/11(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 크리스 02/11(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숙 벨라렛다 02/19(일)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02/19(일)오후3시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02/13(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전하현 마리아 02/11(토)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서용숙 에스텔 02/13(월)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주대종 다니엘 02/11(토) 오후7시 성당2층R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이용무 스테파노 02/10(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파엘 02/11(토)오후6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김명 베드로 02/17(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한애경 올리아나 02/14(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일상 안에서 주님 찾기

성탄 시기를 지내고 새해를 맞이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결산과 예산, 상임위원 선정, 사목계획 작성 등으로 용량도 작은 제 머리에서 김이 났습니다. 이제 연중시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대도 녹색 영대입니다. 녹색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생명력이 있는 느낌이 들어 좋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결혼생활은 단거리 달리기보다 아니라 마라톤과 같이 인내심이 요구되는 달리기입니다. 촌놈(?) 마라톤 하듯이 초반에 너무 달리다 보면 나중에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려면 일상을 즐기며 인내심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신학자 로마노 가르디니는 “가장 평범한 것, 가장 일상적인 행위가 가장 깊은 내용을 품고 있고, 가장 단순한 데에 가장 위대한 신비가 담겨있는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깨우침도 일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나무하고 물을 길었다. 깨달은 뒤에도 나무하고 물을 길는다.”는 선구(禪句)가 있습니다. 나무하고 물을 길는 것은 일상입니다. 이러한 일상에 충실한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꾸준히 사랑하고 즐기며 사는 가운데 기쁨을 얻고 삶의 맛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거창하게 벌여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고 우직하게 단조로움을 참아가면서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시련이나 두려움이 닥쳐도 잘 이겨내리라 여겨집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맛본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다. 인생에서 참으로 영웅적인 행위란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을 대하며 그 구석구석까지 자상하게 돌보는 끊임없는 노력인 것이다.”(스즈키 히데코, 사랑과 치유의 366일에서)

◆전동기 신부 / 우동성당 주임

오늘을 위한 기도

기도로 마음을 여는 이들에게
신록의 숲이 되어 오시는 주님
제가 살아 있음으로 살아 있는
또 한 번의 새날을 맞아
오늘은 어떤 기도를 바쳐야 할까요?

지금껏 제가 만나 왔던 사람들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통해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깨우쳐 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슬기를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밖에는 없는 것처럼 투신하는
아름다운 열정이 제 안에 항상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어제의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인 오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어느 날 닥칠 저의 죽음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겸허함으로
조용히 눈을 감게 하소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직이 외우는 저의 기도가
하얀 치자꽃 향기로
오늘의 잠을 덮게 하소서

이해인

성경 과 성전 의 차이는?

성경(聖經)이 하느님의 말씀을 글로써 기록한 것이라면 성전(聖傳)은 하느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지 않는 채 구전되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을 쓰도록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2티모 3,16, 2베드 1,19-21)

이 말은 하느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움직이시어 당신이 원하시는 바대로 쓰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 영감설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하느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제공합니다.(2티모 3,16-17)

그 살아 있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 중 단 한 줄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이 친히 하신 말씀과 행적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남짓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또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예수님을 체험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분의 말씀과 행적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하고 목격했던 증인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자, 그분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성전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서로 된 것입니다. 성전 즉, 거룩한 전통은 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 진리 또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셨습니다.” (1코린 15,3-4)

Quiz 성경과 성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에 줄을 이으세요.

성경 •

• ① 하느님의 말씀을 글로써 기록한 것

성전 •

• ②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분의 말씀과 행적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 ③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하느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제공

• ④ 하느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지 않는 채 구전되어오는 것

• ⑤ 거룩한 전통

신	자		현				포	
약		교	무	금	십	그	리	스
성		화		주	일	미	사	주
서				조				

(2월5일 자 정답)

「성경 속 동식물」 07 행복과 기쁨의 꽃 수선화

성경에서 수선화는 아가서(2장 1절)와 이사야서(35장 2절)에 두 차례 정도 등장한다. 팔레스티나에서 많이 자생하는 수선화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고 하찮은 꽃이지만, 이스라엘의 귀향과 행복을 전할 때 언급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꽃이다.

수선화는 부활 전 사순시기에 꽃이 피므로 사순절의 백합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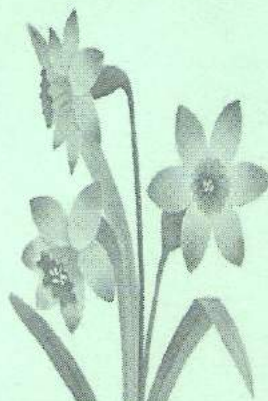


그림 김지선 레지나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직급/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요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집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플베다길

뚜레쥬르

새해 고객 감사 이벤트  
1월 한달동안

\*조각 케익 2개 사시면 하나공짜  
\*케익 하나 사시면 \$5 off(쿠폰지참시)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 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밀반찬, 캐더링 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빌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